"소유스 탄도 착륙 기술적 결함 때문"

러시아 언론 보도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스 TMA-11' 캡슐이 탄도식 착륙을 한 것은 갑작스런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 우주청 유인 우주선 책임자인 알렉세이 크라스노프는 이날 "정해진 시간에 캡슐이 분리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탄도 착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씨와 유리 말렌첸코(러시아), 페기 윗슨(미국)을 태우고 지구로 귀환한 소유스 귀환모듈은 탄도 궤도로 진입, 예상 착륙지점보다 서쪽으로 420km 떨어진 초원지대에 도착했다.

대기권 진입 후 귀환 모듈은 자동으로 지상과의 일정한 각도(3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귀환 모듈은 낙하산을 펴기도 전에 거의 수직에 가깝게 강하하면서 땅에 꽂혔다. 모듈은 땅속 약 30cm 깊이로 파묻혔고 우주인들은 정상적인 경우의 2배에 달하는 중력에 노출되면서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스의 탄도 착륙 원인이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짐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우주인들의 조작 실수는 억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구 재진입 과정에서 소유스 귀환 모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유스 모듈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의 첫 우주인과 러시아 우주인 2명을 태운 귀환모듈은 기술결함으로 예측 지점보다 380km 떨어진 지점에 착륙했고, 2003년 5월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귀환모듈이 예상 착륙지점에서 500km나 벗어나 수 시간 동안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크라스노프는 "탄도 궤도 진입이 비록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를 비상 착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지진이 강타한 중국 쓰촨성 지역에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관들이 22일 쓰촨성 청두의 한 톨게이트에서 차량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中 지진복구 올해 10조5천억 투입

구조활동 일단락 복구체제 전환
붕괴 위험 언색호는 폭파키로

중국은 22일 쓰촨성을 강타한 원촨 대지진 생존자 들에 대한 긴급 구조활동이 일단락됨에 따라 무게중심을 서서히 피해지역 복구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21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정부가 쓰촨성 재건기금으로 올해 700억위안(10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2년간 상응한 규모의 자금을 배정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예산을 5% 감축해 이를 재건비용으로 돌릴 예정이다. 원 총리는 정부 기관과 각급 공공기관들은 회의비용과 출장비용을 줄이고 신청사 건설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 총리는 "참혹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지역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재건작업은 아주 고된 일이 될 것"이라고 시인하고 "각종 기관들은 하루 빨리 재건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원은 또 쓰촨성 지진 피해지역의 재건사업을 자문할 30인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했다. 지진과 지질, 토목, 수자원 전문가인 이들은 쓰촨성 재건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원 총리는 "30인 전문가위원회의 제1차 과업은 지진 당국이 여진을 예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차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며 쓰촨성 재건안을 마련하는 것도 업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베이촨현을 폐기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베이촨현은 여진과 홍수, 전염병 우려로 주민과 구조대원들이 모두 철수해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베이촨현을 시찰한 리커창 부총리는 90% 이상의 가옥이 붕괴한 베이촨현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베이촨현 이재민 1천240만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을 지시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앙정부가 투입하는 쓰촨성 복구자금 외에 추가로 지진 피해지역인 충칭직할시와 산시성, 윈난성 금융기관에 15억위안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수혈받은 유동성을 재원으로 지진 피해지역의 구호활동을 지원하거나 재건공사용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원촨대지진으로 생겨난 21개의 자연호수들이 폭파되거나 배수 처리된다. 중국 수자원 당국은 '언색호'로 인해 홍수 위험이 높아지자 2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언색호는 화산 용암 분출이나 지진 활동 등으로 산이 붕괴되면서 강의 흐름을 막아 형성되는 자연호수로 침식이나 용해 등으로 쉽게 무너져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국 한국 재선 성공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은 21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139표를 얻어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재선됐다. 이날 투표에는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모두 참가했다.

모두 15개의 이사국을 새로 뽑은 이번 투표에서 아시아그룹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바레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6개국이 4개의 이사국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고, 이중 한국 외에 일본(155표), 바레인(142표), 파키스탄(114표)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지역별로 이사국 수를 할당한 뒤 해당 지역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는 나라 가운데 표를 많이 얻은 나라 순으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하고 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였던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총회 산하기구로 탄생했으며 한국은 임기 2년의 초대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은 2006~2008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 등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한국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비극 도울 준비돼 있다"

潘총장 미얀마 방문 국제사회 지원 수용 촉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이클론 '나르기스' 이재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2일 미얀마를 방문했다.

반 총장은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 공항에서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으며 군사정부 지도부 및 구호단체 요원들을 면담한 뒤 헬기를 이용, 나르기스 최대 피해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를 둘러봤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그는 양곤 도착 후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내가 여기에 온 주된 목적은 그 같은 결속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미얀마의 성지(聖地)인 쉐다곤 탑을 방문, 전통에 따라 맨발로 탑돌이를 했다. 그는 "미얀마 국민이 재난을 복구할 힘과 의지와 용기를 위해 기도했다"며 "나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와 1시간 30분간 회담을 갖고 국제구호단체 소속 요원들을 면담한 뒤 헬기로 이라와디 삼각주 지역의 보갈레이와 나부타 지방 등을 돌아봤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에 도착한 직후 한 사원을 방문,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매케인에 8%P 앞서 美대선 여론조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간 대결로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두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을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그비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전역의 유권자 1천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오바마가 48%를 얻은 반면에 매케인은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앞서 지난 달 실시된 조사에선 오바마가 담임목사였던 제레미아 라이트 목사의 '갓 댐 아메리카' 발언 파문 등으로 곤경에 처하면서 매케인과의 대결에서 동률을 기록했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오바마는 누가 경제문제를 잘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48%대 39%로 매케인을 압도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존 조그비는 "오바마는 매우 탄력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달)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다음 대통령은 오바마" 점성술사들 예언

"45년만에 토성이 천왕성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은 변화를 상징하며, 따라서 변화를 주장하는 오바마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점성술사들이 20일(현지시각)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지인 콜로라도 덴버에서 총회를 갖고 오바마를 차기 백악관 주인으로 지목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전했다.

이들은 대선일인 오는 11월 4일 토성이 천왕성과 마주보게 되는 행성의 변화를 '오바마 대망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천체의 움직임은 사회적인 변화 또는 격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성정치로부터의 변화를 주장하는 오바마 지향점과 맞아떨어진다는 것.

이들은 천체 움직임을 볼 때 내년 1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아주 좋지 않은 시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낮 12시30분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수 개월간 예상되는 역동적인 천체 움직임을 감안할 때 대선후보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점성술사들의 예상이었다. /연합뉴스